

이필수 의사협회장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해 볼 것”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엔 “공식 입장 아냐” 답보 상태 빠진 전남권 의대 문제 돌파구 주목 蘇 “의대 신설해 순천·목포에 각각 캠퍼스 설치”

의사협회 확대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은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며 “전남권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 지도부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의사 증원 문제와 관련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새로운 의과대학 신설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의사협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한데 이어, ‘의대 신설 문제’

를 의사협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답보 상태에 빠진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8일 “지난 28일 법사위 간사 선임 축하 인사 겸 현안 법안 설명 차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이 회장에게 전남권 의과대학을 신설해 순천과 목포에 의대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필수(61) 의사협회장은 여수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해 전남지역 의료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소 의원은 이날 이 회장으로서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의료 관련 법안 2건과 관련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소 의원은 이 회장에게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아닌 의대신설에 의한 의사 증원방안이 국

민들에게 더 필요하다”며 “의사 정원 확대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전남권 순천·목포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소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의과대학 신설법안’은 전남도내 1개 의과대학 면허를 받아 ▲동부(순천)와 ▲서부(목포) 권역에 각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의료 수요 특성이 다른 동·서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란 점에서 전남 동·서부가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이날 “이필수 회장은 전남 출신으로 누구보다 전남의 심각한 의료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사 정원 증원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 중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민의 건강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의사 증원 내용(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며 “소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으며 의사협회 지도자들과도 한 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퍼포먼스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에 참석한 문인광 부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북구는 북구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방문의료 및 돌봄사업을 추진할 참여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주북구 제공>

‘영산강 강변도로’ 마지막 구간 공사 본격화

남약 오룡-일로 북쪽 13.2km...1천523억 투입 2027년 완공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까지 총연장 52km의 지방도 85호선 마지막 구간인 ‘영산강 강변도로 2-2단계 개설공사’가 본격 착수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 강변도로 2-2단계 개설공사’는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서 일로읍 북룡리까지 13.2km 구간이다. 2027년 해당 구간이 완공되면 영산강 강변도로 전 구간 개통을 통해 스포츠, 관광, 레저 등과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 도로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남악신도시 교통 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문탄까지 1단계 34km 구간은 2021년 3월 개통했고, 지난해 8월에는 무안 문탄에서 일로 북룡리까지 48km 구간을 완공해 현재 공용 중이다. 그동안 영산강 주변 주민과 자전거 동호회,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 도로 이용객은 강변도로 전 구간의 조기 개통을 염원해 왔다. 또한 오룡지구 개발 후 남약 나들목의 차량 정체가 심하게 교통량 분산을 통한 남약과 오룡지구 출

퇴근차량 교통 체증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영산강 강변도로 2-2단계 개설공사’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2개 공구로 발주했다. 총사업비 1천523억원, 사업 기간은 5년으로 대규모 도비가 투입되는 지방도 사업이다. 유효규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주민과 영산강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한 건의 사고 없이 정성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道, 국립 의대 유치 총력 대응

전담반 회의 추진현황 점검...7월 유치위 출범

전남도는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2분기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전담반’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과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효율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전담반’ 분과별 위원 19명이 참석해 그동안 유치 건의 및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 논의되는 상황에 맞춰 ‘전남 도내 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유치 활동 전개 방안에 집중했다. 전담반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정부, 국회,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의 및 설득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7월 중 지역 내 의대 유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전남도 의과대학 민간유

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취약한 의료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와 정책 연대를 통해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을 공동 건의하는 유치 활동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내 의대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조성을 위해 지하철스크린도어 광고, 다중이용시설 스피트 영상 홍보 등 수도권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남 도내 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균형위·국회균형포럼·지방재정학회 토론회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24명

과 6개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두 번째 모임이다. 행사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 김병욱·이인선·이형석·조오섭·김승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시장협의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해 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를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 쌀 ‘빛찬들’ 호주·뉴질랜드 수출길

광주시는 28일 광주농협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광주지역 쌀 ‘빛찬들’ 18을 호주, 뉴질랜드로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광주시 관계자, 농협중

앙회 광주본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지역 농식품수출협의회 수출기업 및 유통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하는 빛찬들은 총 18(840포/20kg 기준), 3천400만원 상당이

다. 또한 국제다 차류 3종(300만원), 푸프 레찬 김치류 3종(1천만원), 느린마을 부각류(200만원) 등 총 3개 품종(1천500만원)이 동행 수출된다. 이날 선적된 쌀은 28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방역을 거쳐 7월 11일 호주, 뉴질랜드로 향한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세 차례 추가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화순읍 대단지 아파트입구 빌딩부지를 급처분합니다.

- 1) 주거1종 대지 1,505㎡
- 2) 2차선 도로변 앞면넓음 직사각토지
- 3) 유동인구 많음
- 4) 지상물 전무 나대지 바로 건축 가능
- 5) 병의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차빌딩 등 다용도부지
- 6) 매매가: 원매자 상담후 시세이하 [급처분]합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른 상담 ◀

정차처 편의 법철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임 대
- 판매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 062)222-1095, 1096

[급여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